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 12

2021. 02. 18

www.nafi.re.kr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1. 2. 18

Vol. 12

ISSN	2733-8258
발행일	2021년 2월 18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¹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허종호**

- I. 코로나19와 함께한 1년
- II. 코로나19 1년,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 III. 코로나19 1년, 가족관계의 변화
- IV. 코로나19 1년, 방역 관련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 V. 코로나19 1년, 건강의 변화
- VI. 결론 및 제언

¹ 본 브리프는 2020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과제인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예비조사) 중 코로나 문항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

- ▶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1년 한국인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이 2020년 11~12월, 15세 이상 전국 남녀 약 14,000여 명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행복조사」 설문 조사 내 코로나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함

(1)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 ▶ 코로나19 1년간 20대 이상 응답자 중 일자리 변동(실직, 폐업, 정직, 휴직, 비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전환)을 겪은 비율은 5.5%임. 응답자의 64.4%는 변화 없음
 - 일자리 변동을 겪은 사람 중 여성은 55.6%, 남성은 44.4%를 차지함
 - 임금근로자 남성의 경우, 20~30대에서 실직 및 파트타임 전환 비율이 집중됨(각각 62.3%, 52.0%)
- ▶ 전체 응답자의 19.6%는 소득이 감소했으며 감소액은 월평균 약 79만 5천 원임
 - 임금근로자의 88.2%는 수입 감소가 없었던 반면, 자영업자의 61.2%는 임금감소가 있었고, 9.7%의 자영업자는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었음

(2) 가족관계의 변화

- ▶ 코로나19 1년간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14.8%, 안 좋아졌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남
 -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가족관계 개선 또는 악화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음
 - 기초수급가구 및 1인 가구가 각각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개선은 낮고 악화는 높은 비율을 보임

(3) 방역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 ▶ 방역을 위한 일상 포기 주장에 대해서 동의가 전체 응답자의 69%(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감염은 확진자의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가 55.0%, 확진자의 동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63.2%가 동의함
 - 세 가지 주장에 대해 모두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약 3~7% 포인트 정도 낮은 동의 비율을 보임
 - 방역 준수 여부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74.1%가 그렇다고 응답, 24.8%는 보통이다, 준수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1%으로 나타남
 - 지역별 방역지침 실천은 전남, 강원, 전북, 광주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함

(4) 건강의 변화 측면

- ▶ 전체 응답자의 16.6%는 코로나19 1년 동안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3.8%임
 -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답자의 65.4%는 건강한 식사를 실천하였고, 다음으로 충분한 수면(61.9%), 운동(40.4%), 명상, 요가 등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활동(31.1%), 가족/친구들과의 연락(30.6%) 순으로 실천함
 -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있어서 1인 가구가 그 외의 가구에 비해 1~5% 포인트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코로나19 1년 동안 20세 이상 응답자의 19%는 흡연량이 감소하였고 6.9%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 여성이 남성보다 흡연량이 더 많이 감소함(남 18.6% vs. 여 24.2%)
- ▶ 코로나19 1년 동안 20세 이상 응답자의 13.0%가 음주 빈도가 일주일 평균 1.6회 감소했다고 응답함
 - 남자가 여자보다 음주 빈도 감소 비율에 있어서 약 2.5배 이상 높았고 20대의 22.0%에서 음주 빈도 감소를 확인함
 -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음주 빈도 감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최근 우울감은 성별 평균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고위험 우울감 그룹에서 남성보다 10% 포인트 이상의 여성이 우울감을 겪고 있음
- ▶ 전체 응답자의 13.5%가 코로나19 1년간 코로나와 무관한 의료적 필요를 느꼈고 이중 68.0%가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았으나, 24.4%는 늦게 받았고(전체 비율: 3.3%), 7.6%는 검사 또는 치료를 포기하였다(전체 비율: 1.1%)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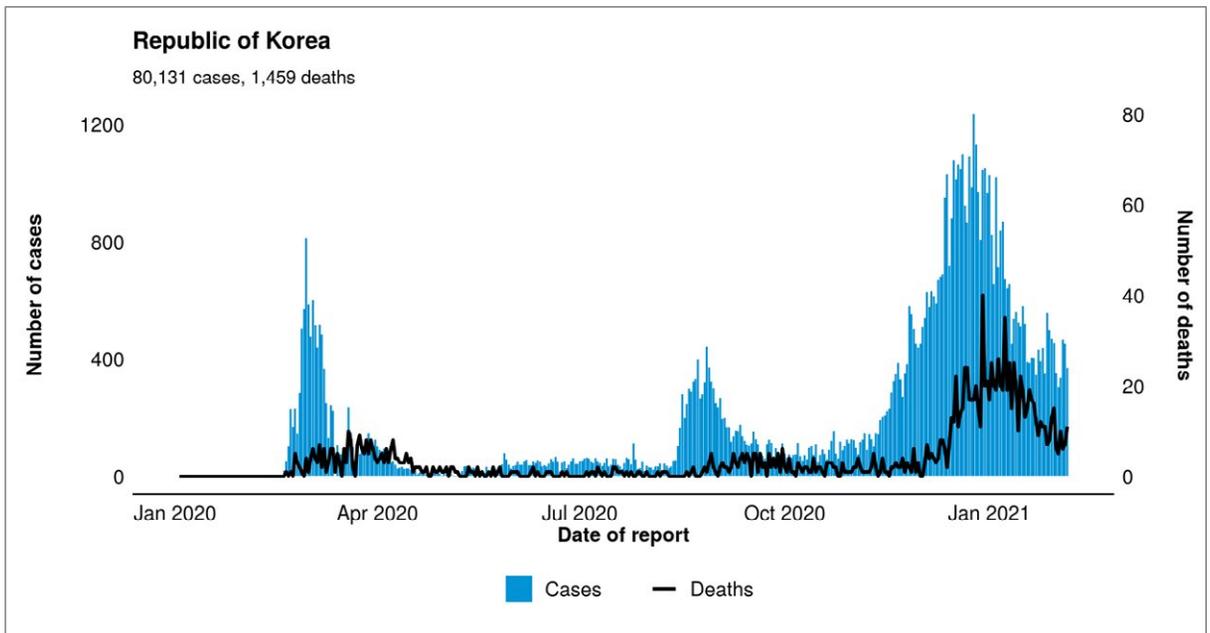
● 결론 및 제언

- ▶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1년간 취약계층 중심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코로나19가 더욱 장기화 될 경우 취약계층의 불이익이 축적되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가 우려됨
- ▶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정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I. 코로나19와 함께한 1년

국회미래연구원은 2050년을 상정한 시나리오 연구에서 신종감염병의 출현에 대해 예측한 바 있다. 미래의 신종감염병은 도시화, 여행·교역의 증가, 생태환경 파괴 등으로 인해 점차 치명률과 감염률이 높은 바이러스로 진화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2018년 연구에서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심각한 감염성 질병을 통한 집단 사망” 가능성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도출한 바 있다.¹ “신종감염병이나 바이러스가 대규모 발생하진 않으나, 면역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규모 감염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2050년을 바라볼 필요도 없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기도 전에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림 1]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및 사망자 추이(WHO, 2021)³



1 김유빈 편 2018,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 김홍범 편 2019,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 국회미래연구원

3 World Health Organization, COVID-19 Explorer(<https://worldhealthorg.shinyapps.io/covid/>) 2021.2.6 접근

일명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2)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2021년 2월 현재, 국제적으로는 1억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220만 명을 넘었고, 한국은 누적 확진자 8만여 명, 사망자 수는 1,400명을 넘었다.⁴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도 못지않게 고통스럽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자리와 수입의 감소, 우울증 및 자살의 증가,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낙인 등 사회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이 전국민 대상으로 2020년에 실시한 「한국인의 행복조사」 설문에 포함된 코로나 관련 문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1년 한국인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국가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응답자 선정 및 전문조사 업체를 통한 설문조사를 2020년 11~12월 동안 15세 이상 전국 남녀 약 14,000여 명 대상으로 실시하였다.⁵

「한국인의 행복조사」내 코로나19 관련 설문 중 코로나19 1년간의 (1) 일자리, 소득의 변화, (2) 가족 관계의 변화, (3) 방역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4) 건강의 변화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⁶

II. 코로나19 1년,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1. 일자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변화를 묻는 질문에 20대 이상 응답자의 64.4%는 일자리 변동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정직/휴직(2.1%), 일자리를 잃음/폐업(1.5%), 파트타임 전환(1.1%), 비정규직 전환(0.8%)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2).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변동을 겪은 사람 중 여성이 55.6%, 남성이 44.4%로 나타났다. 일자리 변동을 겪은 사람들 중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불이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파트타임으로의 전환은 남성(31.0%)의 두 배가 넘는 69.0%가 나타났다.

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https://covid19.who.int/>), 2021. 2. 6 접근

5 「한국인의 행복조사」 관련 보고서는 3월경에 출판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에 대한 주요 결과 요약은 5월경 국회미래연구원의 「국가미래전략 Insight」로 발간될 예정임

6 모든 분석은 가중치를 반영하여 제시함

[그림 2] 코로나19 1년간 일자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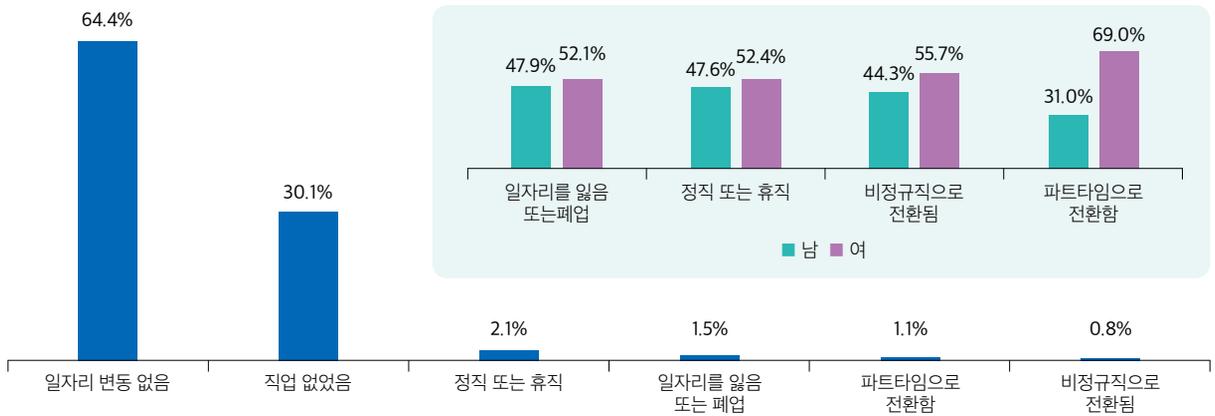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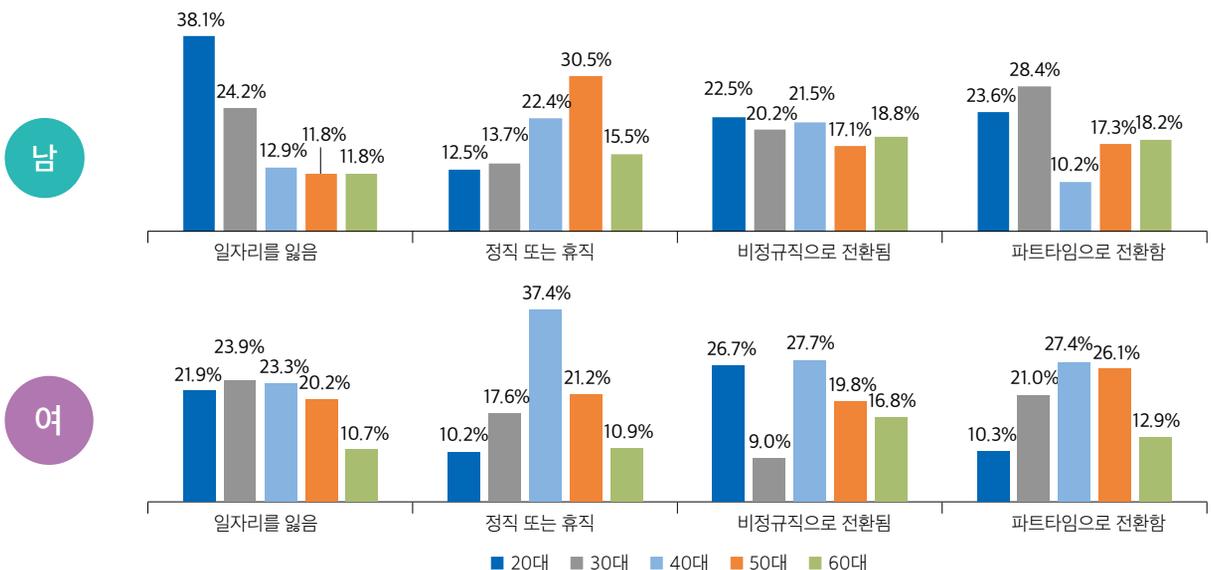


그림 3은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남녀 간, 연령 별로 일자리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 20대, 30대에서 실직 또는 파트타임 전환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남성 중 20대가 38.1%, 30대 24.2%로 20~30대에서 60%가 넘었다. 파트타임으로 전환된 남성 중 20대가 23.6%, 30대가 28.4%로 50%가 넘는 파트타임 전환 남성이 20~3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여성의 경우, 20~50대의 실직이 고르게 나타났으며 40대의 정직 또는 휴직이 두드러졌다(37.4%). 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남녀 간의 직업안정성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남성 청년세대에 특히 불이익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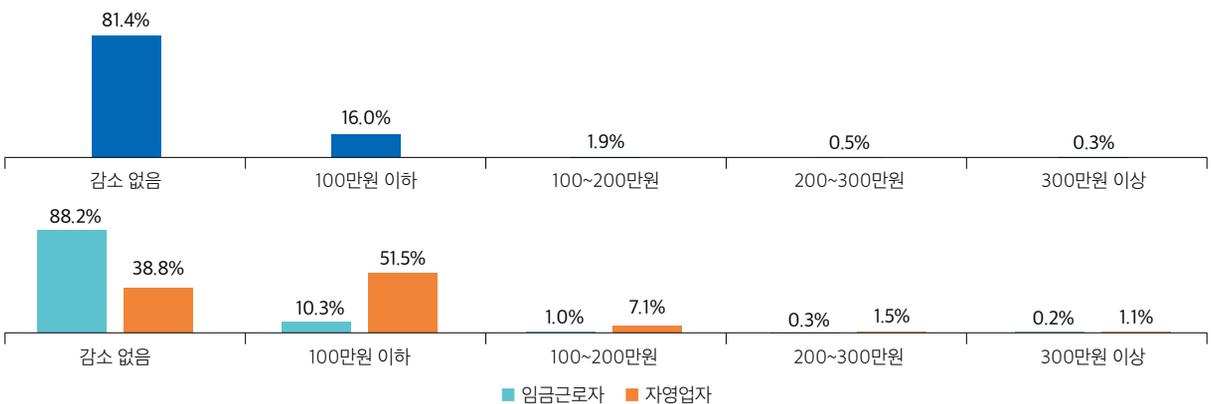
[그림 3] 코로나19 1년간 남녀, 연령대별 일자리 변화(임금근로자)



2. 소득 감소액

코로나19 이후 1년간 월평균 개인소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1.4%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월평균 약 79만 5천 원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단위로는, 100만 원 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16.0%, 100~200만 원이 1.9%로 나타났다(그림 4).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는 자영업자에게 집중되어 나타났다. 수입 감소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88.2%는 임금근로자인 것에 반해, 자영업자 중 61.2%는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금액대에서 임금근로자보다 약 5배 높은 비율의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되었다. 자영업자의 51.5%는 월 100만 원 이하의 감소를 경험하였고, 자영업자 열 명 중 한 명(9.7%)은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손실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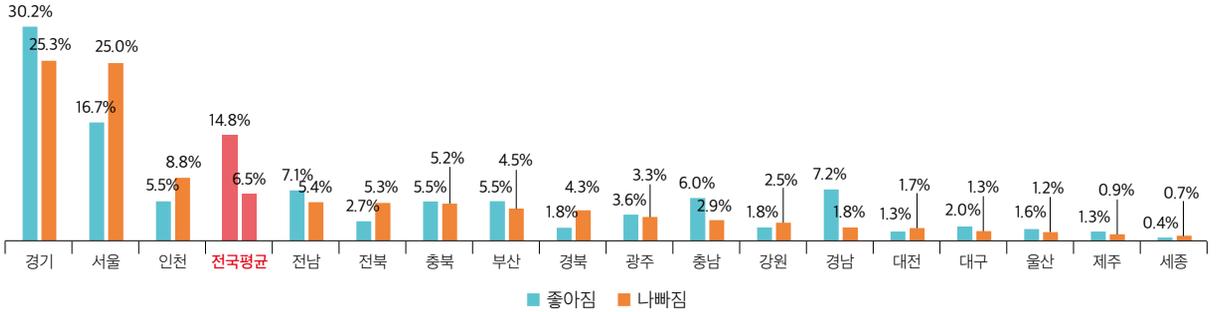
[그림 4] 코로나19 1년간 월평균 소득 감소액



Ⅲ. 코로나19 1년, 가족관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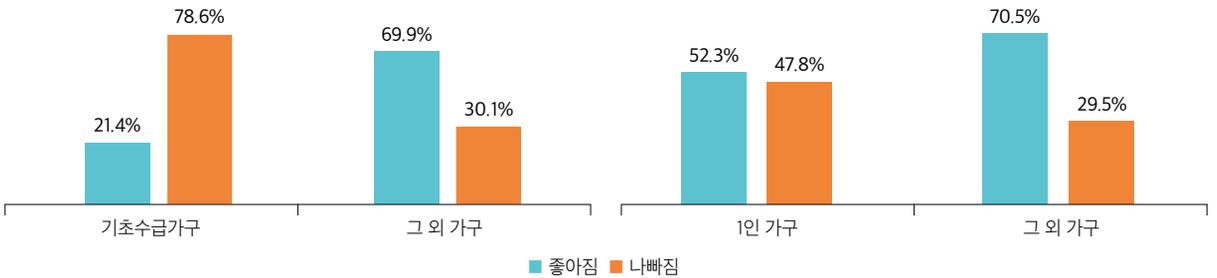
코로나19 1년 동안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8.7%는 변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좋아졌다는 응답은 14.8%, 안 좋아졌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다(그림 5).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가족관계 개선 또는 악화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서울은 25%가, 인천은 8.8%가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전북, 경북도 가족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개선되었다는 응답보다 좀 더 많았다.

[그림 5] 코로나19 1년간 가족들과의 관계 변화



가구형태에 따른 가족관계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6), 기초수급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가족관계가 좋아진 비율은 1/3 정도이고(69.9% vs. 21.4%) 나빠진 비율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2배 넘게 높았었다(30.1% vs. 78.6%). 1인 가구도 2인 이상 가구에 비해서 좋아진 비율은 낮고(70.5% vs. 52.3%) 나빠진 비율이 높았다(29.5% vs. 47.8%).

[그림 6] 코로나19 1년간 가족들과의 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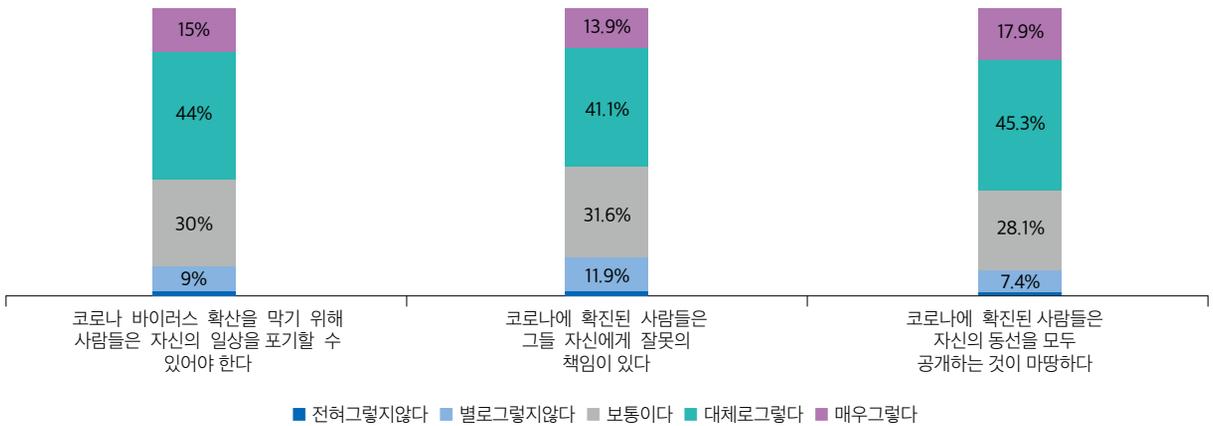
IV. 코로나19 1년, 방역 관련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1. 방역 관련 가치 인식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 대 개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5점 척도로 물어보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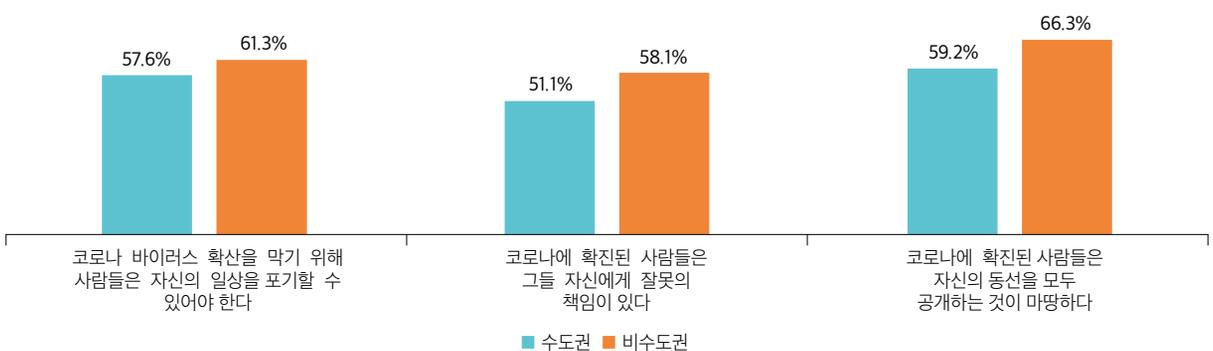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자신의 일상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잘못의 책임이 있다”,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은 자신의 동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방역을 위한 일상 포기 주장에 대해서 동의가 69%(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감염은 확진자의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가 55.0%, 확진자의 동선은 모두 공개 주장에 대해서 63.2%가 동의를 하였다.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로 개인의 사생활과 유익보다는 공동체적인 유익이 우선하고 있었다(그림 7).

[그림 7] 코로나 관련 가치 인식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세 가지 주장에 대해 모두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약 3~7% 포인트 낮은 동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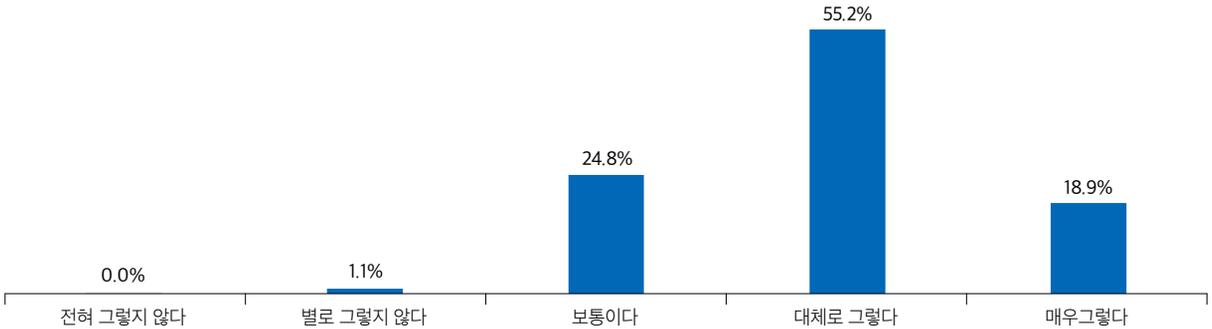
[그림 8] 코로나 관련 가치 인식의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2. 방역수칙 준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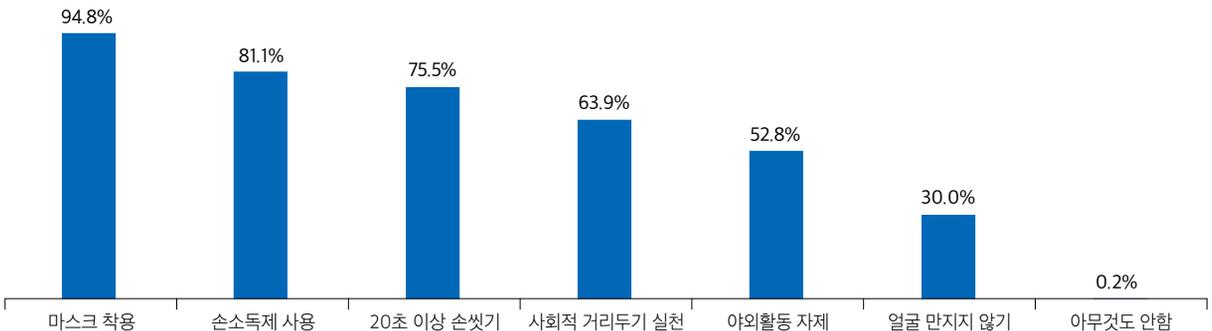
방역수칙 준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4.1%(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준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준수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1%로 나타났다(그림 9).

[그림 9] 코로나19 1년간 방역수칙 준수 정도



방역지침 실천과 관련하여 중복응답을 허용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4.8%는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손소독제 사용(81.1%), 20초 이상 손씻기(75.5%),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63.9%)을 실천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0).

[그림 10] 코로나19 1년간 실천한 방역지침



실천한 방역지침에 대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서 전남, 강원, 전북, 광주 순으로 실천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그림 11] 코로나19 1년간 실천한 방역지침의 지역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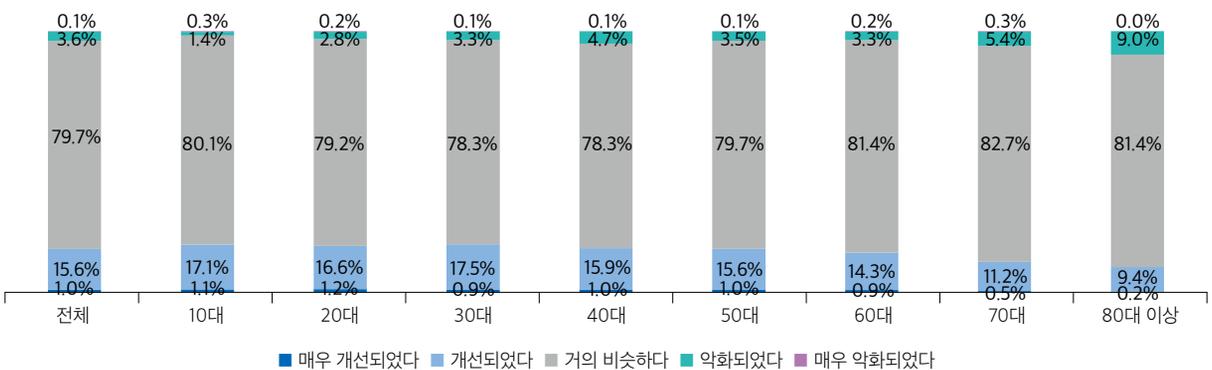


V. 코로나19 1년, 건강의 변화

1. 코로나 이후 건강상태

코로나 이후 건강상태가 변화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6.6%는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3.8%는 악화되었다고 답하였다. 전체 응답의 79.9%는 건강상 변화가 없다고 답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선되었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악화되었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2).

[그림 12] 코로나19 1년 이후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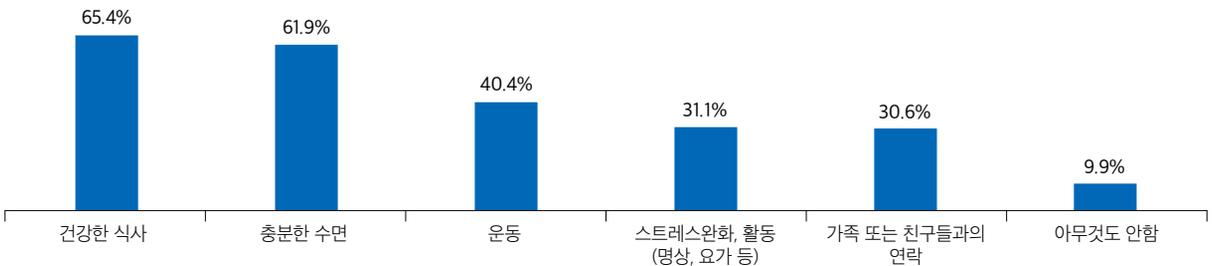


2.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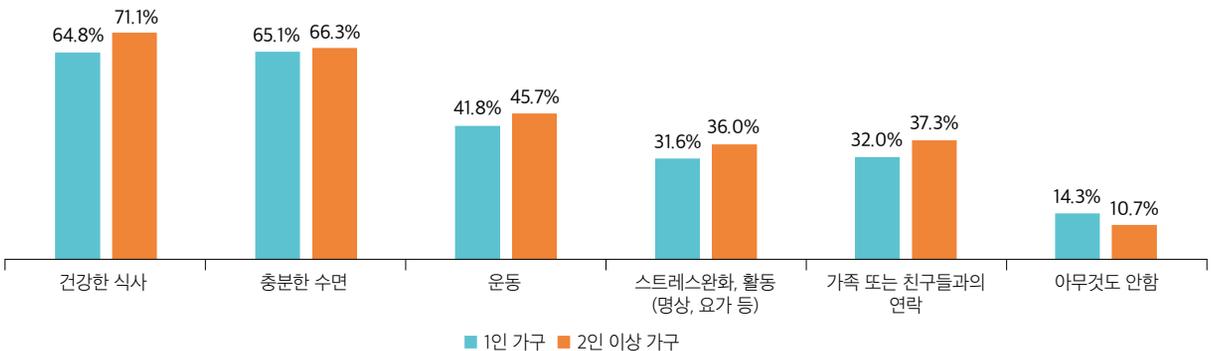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5.4%는 건강한 식사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충분한 수면(61.9%), 운동(40.4%), 명상, 요가 등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활동(31.1%), 가족/친구들과의 연락(30.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3).

가구 형태 중 1인 가구와 그 외 2인 이상 가구와 구분해서 살펴보면, 1인 가구가 그 외의 가구에 비해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1~5% 포인트 정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인 가구도 1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그림 13] 코로나19 1년간 건강 유지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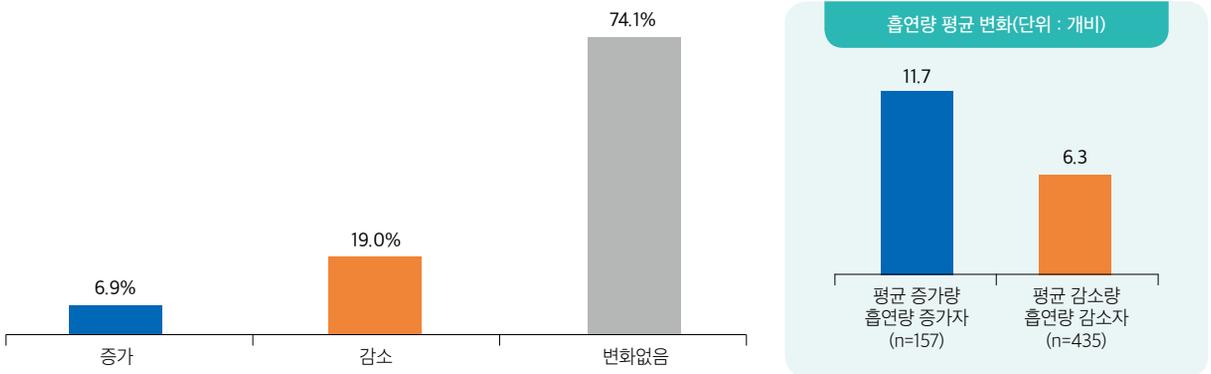
[그림 14] 코로나19 1년간 가구유형별 건강 유지 실천율



3. 코로나19 이후 흡연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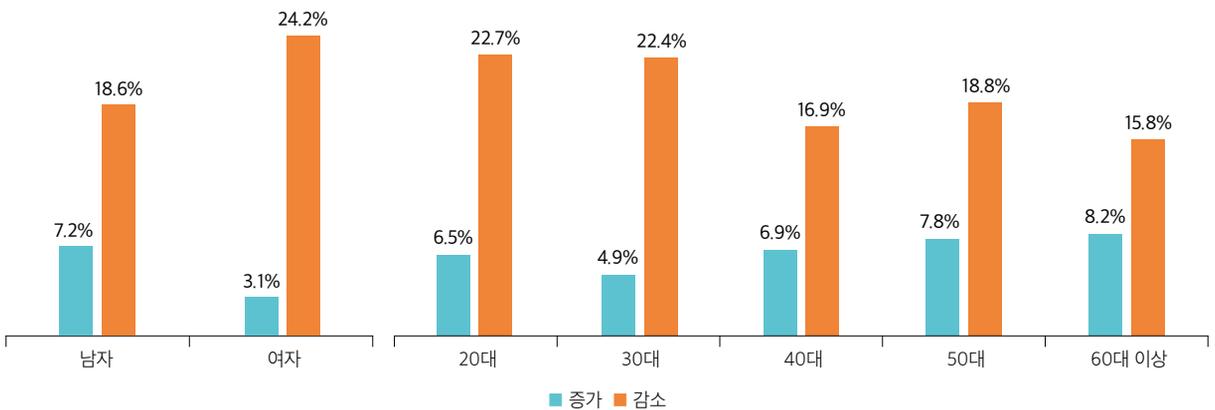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흡연량 변화 여부를 문항에 대해 변화 없다는 응답이 7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증가가 6.9%, 감소가 19.0%로 조사되었다. 평균 흡연량 변화에서 흡연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일주일 평균 11.7개비, 흡연이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일주일 평균 6.3개비 감소하였다고 응답했다(그림 15).

[그림 15] 코로나19 1년간 흡연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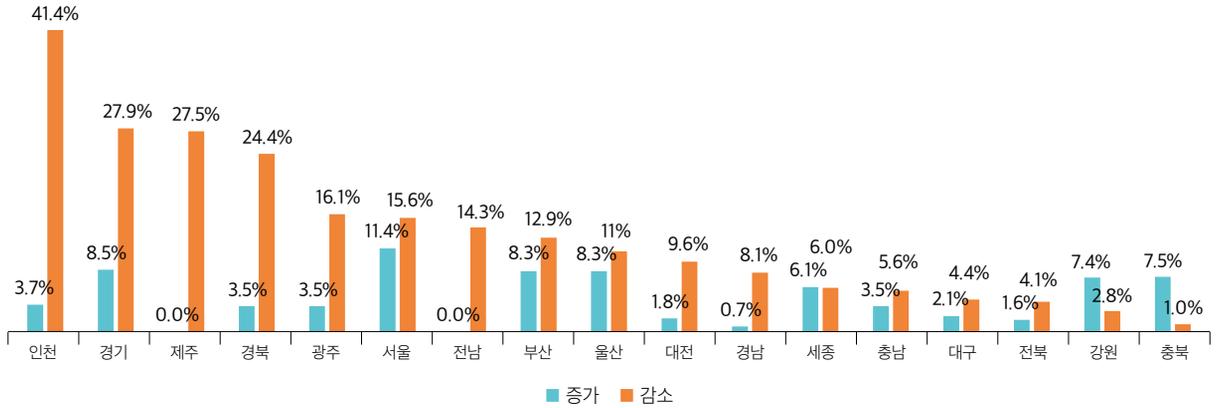
성별로 흡연량의 증감 여부를 살펴보면(그림 16), 여자가 남성보다 흡연량이 더 많이 감소하고(감소: 남 18.6% vs. 여 24.2%) 더 적게 증가하였다(증가: 남 7.2% vs. 여 3.1%).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20~30대에서 흡연량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흡연량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가장 적었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흡연량이 증가했다는 비율이 높아졌고, 흡연량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낮아졌다.

[그림 16] 성별, 연령별 코로나19 1년간 흡연량 변화



지역별로 흡연량의 증감 여부를 살펴보면, 인천, 경기, 제주, 경북, 광주의 순으로 흡연량 감소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흡연량 감소 응답 비율이 줄어들수록 흡연량이 증가했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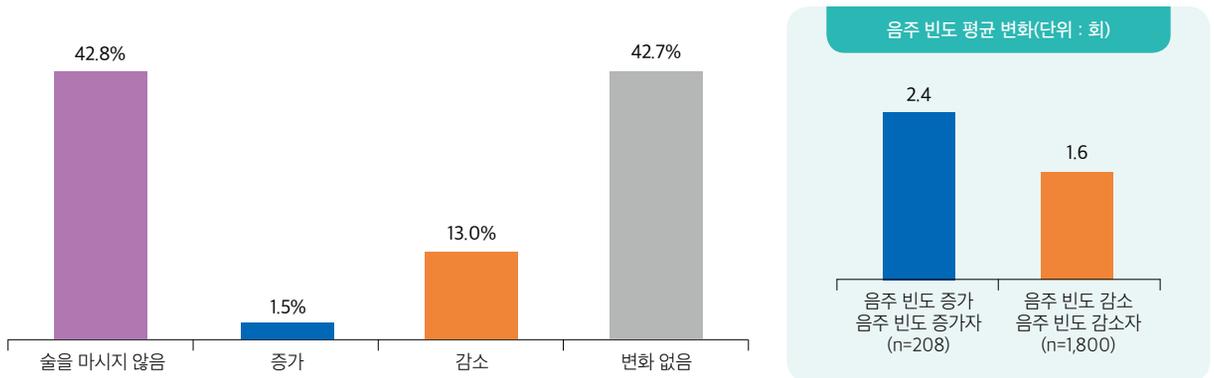
[그림 17] 지역별 코로나19 1년간 흡연량 변화



4. 코로나19 이후 음주 빈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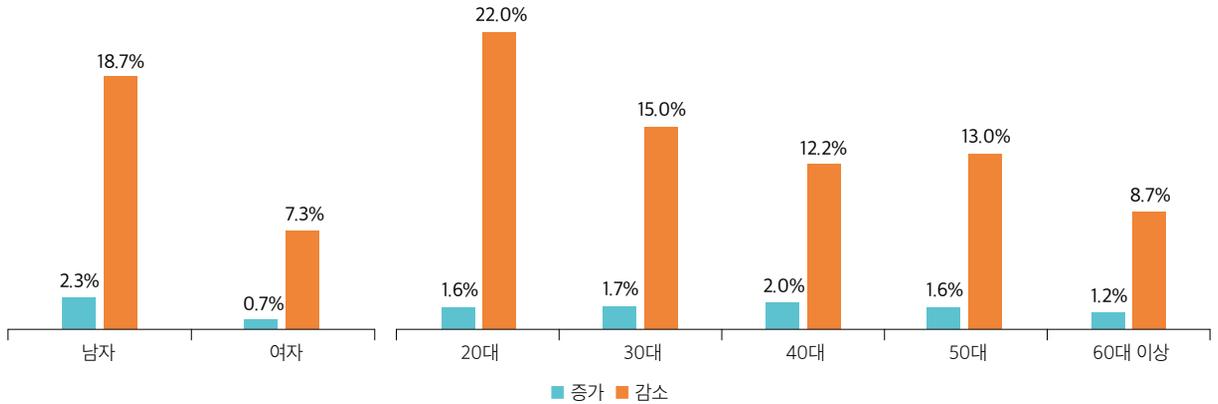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음주 빈도 변화에 대해 증가가 1.5%, 감소가 13.0%로 나타났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응답자는 42.8%, 코로나19 전후 변화 없다는 응답이 42.7%로 조사되었다. 음주 빈도 평균 변화에서 음주 빈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일주일에 평균 2.4회, 음주 빈도가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일주일 평균 1.6회 감소하였다고 응답했다(그림 18).

[그림 18] 코로나19 1년간 음주빈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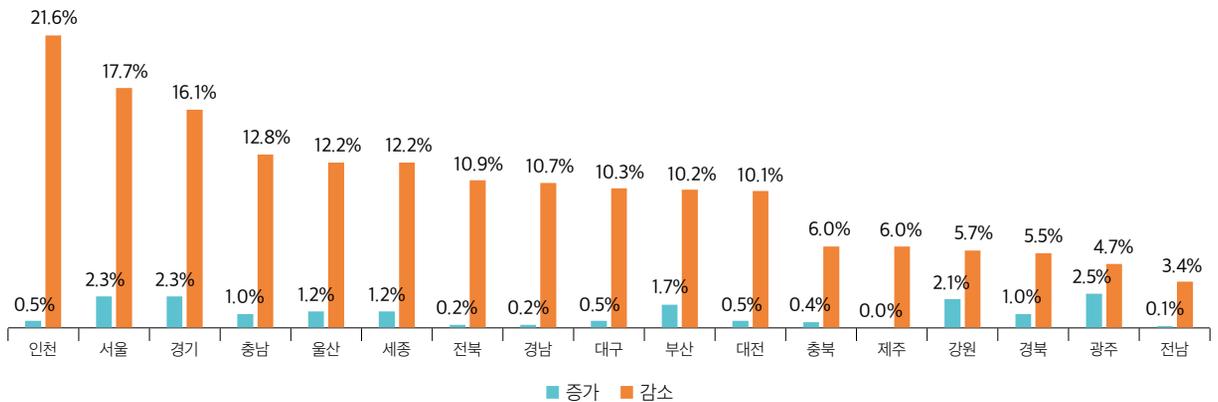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1년간 음주 빈도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약 2.5배 이상의 응답자가 음주 빈도가 감소했다고 답하였다(남: 18.7% vs. 여: 7.3%).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22.0%가 음주 빈도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음주 빈도의 감소 응답 비율은 줄어들었다(그림 19).

[그림 19] 성별, 연령별 코로나19 1년간 음주 빈도 변화



지역별로 코로나19 1년간 음주 빈도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감소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인천: 21.6%, 서울: 17.7%, 경기: 16.1%)(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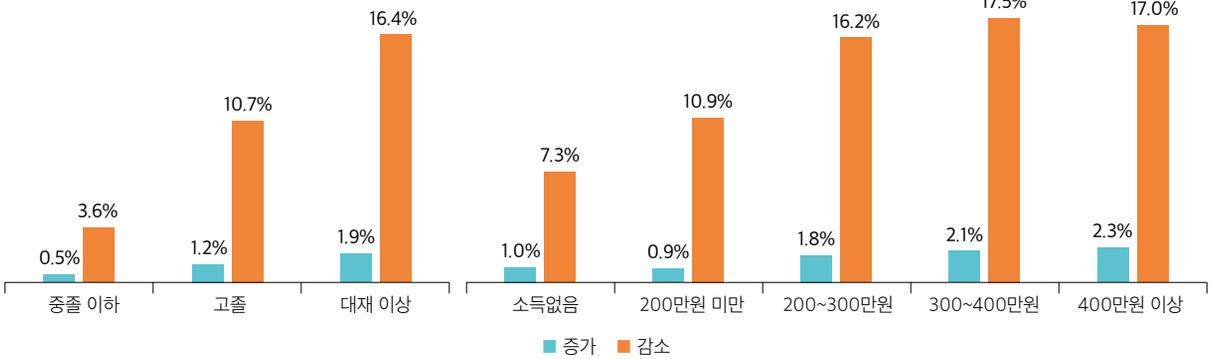
[그림 20] 지역별 코로나19 1년간 음주 빈도 변화



응답자의 교육수준 및 개인소득에 따른 음주 빈도 감소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울기(gradient)⁷가 잘 나타나고 있다(그림 2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음주 빈도 감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대학교 재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은 중졸보다 4배 이상 음주 빈도 감소 응답 비율이 높았다. 평균 월 소득 400만 원 이상의 집단은 소득이 없는 집단보다 2.5배 정도 음주 빈도 감소 응답 비율이 높았다.

7 사회적으로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의 건강(행태)이 사회적으로 더 열악한 사람보다 건강(행태)이 단계적으로 점차 나아지는 현상.

[그림 21] 교육수준별, 개인소득별 코로나19 1년간 음주빈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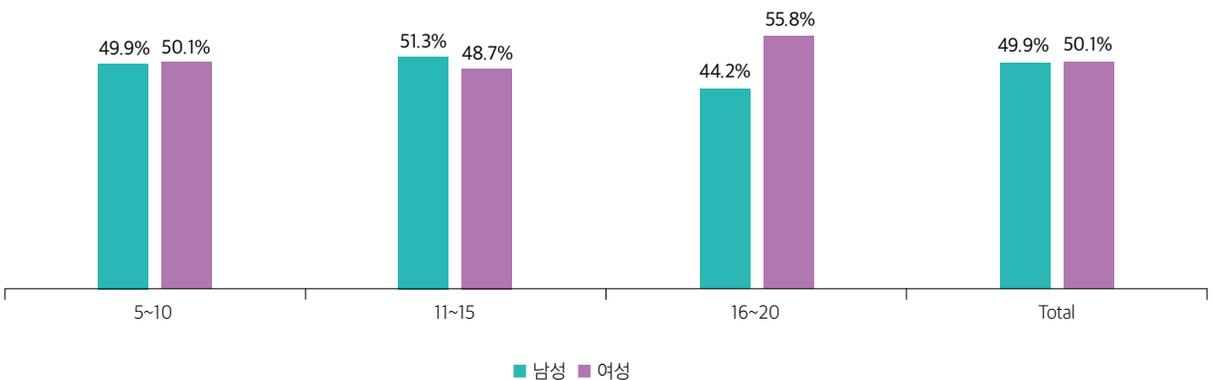


5. 최근 우울감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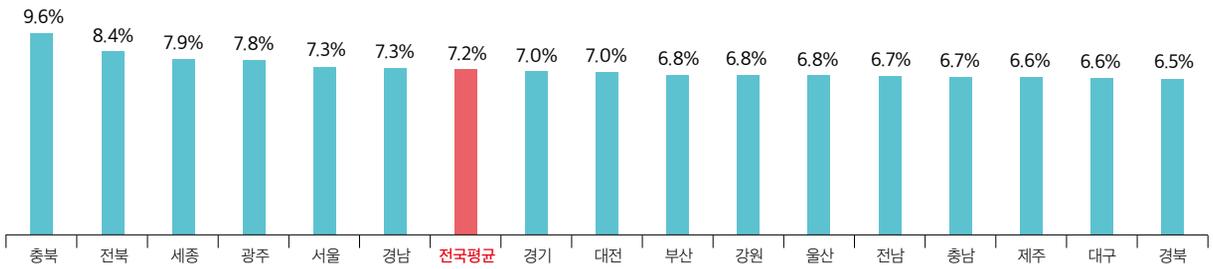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주 이상 (1) 초조함과 불안함 (2) 걱정을 멈추거나 통제할 수 없음 (3) 우울감 또는 절망감 (4)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5) 외로움과 같은 증상이 자주 얼마나 있었는지 물었다. 각 문항에 대해 ① 전혀 없음 ② 일주일 미만 ③ 일주일 이상 ④ 거의 매일의 보기로 점수화하여 우울감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평균 우울감은 남자 49.9%, 여자 50.1%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남성보다 10% 포인트 이상 많은 비율의 여성이 16~20점 대의 높은 우울감을 겪고 있었다(그림 22). 우울감 경험 점수를 지역별로 확인해보면, 충북(9.6점), 전북(8.4점), 세종(7.9점), 광주(7.8점)의 순으로 지역 평균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그림 22] 성별 최근 우울감 경험 비율



[그림 23] 지역별 최근 부정적 감정 경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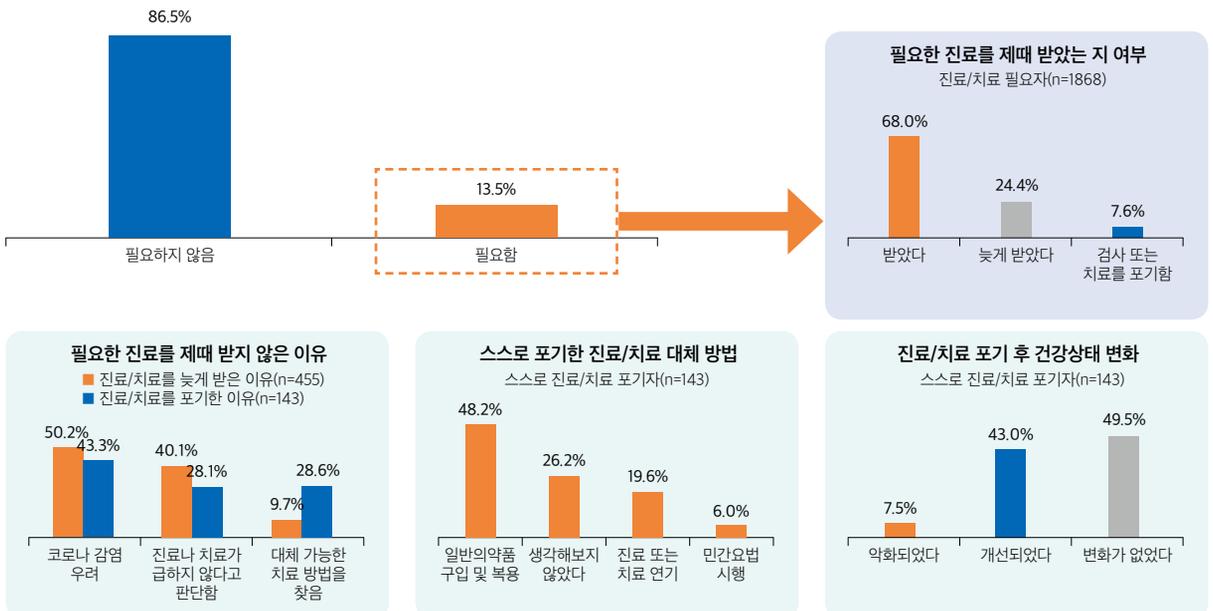


6. 코로나와 무관한 의료적 검사·치료의 접근성

지난 1년간 코로나 이외의 의료적 검사/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13.5%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필요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의 68.0%가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았으나, 24.4%는 늦게 받았고(전체 비율: 3.3%), 7.6%는 검사 또는 치료를 포기하였다(전체 비율: 1.1%)고 응답하였다.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않은 이유로 코로나 감염 우려, 스스로 포기한 진료/치료 대체 방법으로 일반 의약품 구입 및 복용, 진료/치료 포기 후 건강상태 변화로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24] 코로나 진단 및 치료 외 검사/치료 관련



VI. 결론 및 제언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1년 한국인이 겪은 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국회미래연구원이 2020년 전국 15세 이상 남녀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행복조사」 설문 내 코로나 관련 응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절망적이지 않은 수치

본 조사로 살펴본 코로나 19와 함께 한 대한민국의 1년은 국제적으로 평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절망적인 편은 아니다. 국민의 64.4%는 일자리의 변동이 없었고 81.4%는 소득 감소가 없었다. 78.8%는 가족과의 관계에 변화가 없었고 14.8%는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방역과 관련해서 국민의 74.1%가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었다. 건강상태도 1년간 79.9%는 변화가 없었고 16.6%는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식이, 수면, 운동, 정신건강 등을 위한 실천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흡연과 음주 같은 유해한 건강행태는 대폭 감소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의료적 접근성도 인구 전체의 5% 미만의 사람들이 적절하게 의료시설에 가지 못하는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초기 코로나19 방역은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되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몇 차례의 대유행이 있었으나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인구대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도 매우 긍정적이다. 전국민 건강보험체계 하에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염병관리법 등의 법개정이 있었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노력이 있었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 등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개인보다는 사회를 우선하는 가치관 등이 결과적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였고 이는 국가적으로 전반적인 피해를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우려

그러나, 다수의 다행이 소수의 불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격과 건강 피해 등은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많은 재정적·인적 자원 및 권력, 지식, 정보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본 자료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변동을 겪은 사람 중 여성이 더 많으며, 남성 청년층에서 실직 또는 파트타임 전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세대에 따른 직업안정성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다. 소득 감소에 있어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월등하게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었다. 가족관계의 경우 기초수급가구와 1인 가구가 그 외의 가구들보다 악화 비율이 높았다. 1인 가구는 건강실천 비율에서도 2인 이상 가구보다 떨어졌다. 음주 빈도의 경우, 교육수준 및 개인 수입 수준에 따라 감소폭이 계단과 같이 증가하였다. 우울감의 경우 고위험군에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편차는 지역별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에 쏠리게 된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근거기반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이러한 불평등한 패턴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코로나 상황 이전보다 더욱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저명한 의학저널 란셋(Lancet)의 편집장인 리처드 호튼은 코로나19 상황이 판데믹(pandemic)이 아니라 신데믹(syndemic)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즉, 바이러스만 창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를 드러내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하지 못한다면 치료제와 백신의 발명만으로 코로나19는 종식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방역단계와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집단감염 사례 등에 몰두한 나머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에 근거한 예방 및 회복과 관련된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방역정책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서부터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만 수집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확진되고 사망했는지도 같이 관찰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증적인 자료와 연구에 기반할 때 코로나19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 단기적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실효성 있는 중장기 노동 정책, 복지 정책, 환경 정책, 도시 정책 등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 분석의 제한점

본 분석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조사는 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집단시설 및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상자들이 본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사 결과가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조사는 모두 자가기입식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한 1년을 회상해서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회상 편이가 응답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방역 실천 및 흡연, 음주 관련 문항은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기준에 따라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아프면 누구나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준 귀한 교훈 중의 하나이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병수당 정책 도입에 가속도가 붙었듯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가는 것도 중앙 및 지방정부가 방역정책과 함께 병행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다. 신종전염병은 계속 되풀이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또 올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음 신종전염병 역시 우리 사회의 약점을 우선적으로, 더 아프게 공격할 것이다. 다음 신종전염병 시기에도 국민의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취약하고 소외된 부분을 회복시키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 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영훈(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김유빈(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2020.12.24
1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2021.1.7
1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
12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중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2.18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 Fax 02-786-3977